

50세 스님도 '나이 많다' 못하는 현실보다 더 문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 고뇌하였고, 결국 당시 인도 청년들이 최고의 이상으로 삼던 두 가지 길, 천하를 다스리는 전륜성왕과 정신세계의 왕인 출가수행자 중 수행자의 길을 택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어야 하는 현실적 한계와 고통, 그것을 자각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추구한 청년 석가모니 부처의 길을 따르는 젊은이들의 발심이 좋고 있다.

조계종은 2002년 '고령 출가자 증가와 승가교육의 질'을 이유로 출가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2005년 출가 연령은 다시 50세 미만으로 환원됐다. 발심 출가의 권리란 원칙 고려와 함께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세로 인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조계종 소속 승려는 1만 3860여 명, 기초 승려교육을 마친 연간 출가자 수는 10년 전인 1999년 532명에서 2009년 259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2005~2010년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05년 326명, 2006년 334명, 2007년 336명, 2008년 287명, 2009년 259명, 2010년 284명으로 감소 이후 유지 상태다.

하지만 출가자의 절대적인 수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출가자의 연령은 20대 20%, 30대 30%, 40대 40%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출가연령 상한선을 40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조정된 이후 40대 이상 출가자의 수가 늘었다. 상한선을 50세로 늘린 것이 출가자 감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출가자 확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은 2009년 말 20대를 대상으로 출가를 권유하는 글을 공모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출가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중적인 스님들의 출가권유 글이 실렸으며 행사과정 등을 담은 동영상, 출가안내 Q&A 코너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출가를 권장하고 있다.

젊은 층 확보가 고령화 대안인가? 사회적으로 사회인구의 고령화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승가에서도 고

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 대두됐다. 하지만 젊은 스님들에 대한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불교계에서는 출가자 수 감소가 문제,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수직화할 수 있는 양보다 실질적으로 포교, 역경 등 불교계 현장에서 될 수 있는 원력을 가진 활동 인구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요청 하에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는 말사 주지의 세립 45세 이상 조건을 삭제했다. 포교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출가종책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정범 스님은 "50세 이상의 발심자를 위해 승단의 문화 개방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출가에 대한 교계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금강 스님도 "젊은이들의 출가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며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등 연령별 출가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스님은 "아무래도 젊은 스님들이 활동적이고 젊은 세대를 이끄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일선 사찰에서는 50세면 한창 일할 나이로, '나이 많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편이다. 나이와 별개로 활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 확보와 함께 고령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출가학교 출가 인식 재고 기여

월정사, 마곡사, 정토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단기출가는 청소년출가제도 마련과 함께 출가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단기출가 학교는 단순한 수행체험을 넘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월정사와 정토회만 해도 단기출가에 동참한 인원이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단기출가에서 출가발심한 사람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일상 생활에서 삶의 전환이란 계기를 제공해 출가로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기출가 학교가 단기출가를 출가에 앞선 행자생활로 명시하고 있다.

월정사의 경우에는 '휴양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입산하시려는 분은 참

가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장 정범 스님은 "단기출가를 통해 세상에 대한 회피나 탈출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출가에 대한 시선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꾸려는 출가의 진정한 의미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웃종교에도 역량 향상이 화두

한국 가톨릭의 경우에는 예부터 독실한 신도들 사이에서 자식 중 한 명은 성소자(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가 돼야한다는 분위기로 수도자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이 추세가 꺾였다. 서울대교구 사제 수품자는 1990년대 초 매년 40~50명 수준에서 2008년 19명, 2009년 27명으로 줄어들었다.

유럽과 북미의 경우 수도원에도 대부분이 노수녀들이 차지하고 있

숫자보다 역량 중요한 시대

'소수 정예화'가 시대의 비전

시대에 맞는 재교육기관 필요

단기출가 통해 출가인식 개선

다. 수녀원 실무를 맡고 있는 이들도 유렵 출신 수녀들이 아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 출신의 젊은 수녀들이 실정이다. 수녀가 되려는 젊은 여성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자 급기야 캐나다의 가톨릭계는 2009년 라디오 광고로 수녀를 모집하기도 했다. 온타리오 수 생 마리의 세인트 조셉 수녀회의 라디오 광고에서는 '수녀들이 지켜야 하는 청빈과 육체적 순결, 순종의 서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또 남성 독신수도자들의 감소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가톨릭 일각에서는 신부 혼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가톨릭계 내부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질적 향상이 아닌 무분별한 양적 확대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가톨릭계는 신자들에게 배포되는 주보를 통해 '성소자 모집' 광고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신심 다지기도 나서고 있다. 가톨릭계는 수도원 별 성소자 모임을 가지며 청소년 신자들의 '성소자' 인식을 재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 과정에도 나서고 있다.

무분별한 양적 확대에 의한 문제는 개신교의 경우에서 드러난다. 개신교는 반대로 너무 많은 성직자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회는 33만 8000여 곳이지만 목사는 60만 명에 이르러 실업난이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성장주의 하에 개교회 난립과 신학생의 과다 배출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다. 무분별한 양적인 팽창으로 한량 미달인 성직자로 인한 전체 개신교계의 인식이 저하되고 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는 가톨릭의 소수 정예 시스템을 참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참

고로 2009년 개신교 성직자 수는 약 10만 명에 교회는 5만여 개, 가톨릭 교구소속 신부는 3500여 명에 본당과 공소는 2500개 수준이다.

한 전문가는 "출가자의 수적 감소의 대안뿐 아니라 질적 제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되고 있는 승단과 사회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찰 최초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청암사 승가대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춘 예로 평가된다. 사찰 승가대학 최초로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아이패드를 활용한 교육을 선보인 청암사 승가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는 전자수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화 시대에 불교계 중흥을 위해서는 직할교구 및 지역 사찰 주지 임용에서부터 주지 고과 도입 등이 미 시작된 불교계 내부의 변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종교계, 성직자 고령화대책 부심

성직자들의 고령화 문제는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다른 각 종교의 성직자들의 평균 연령도 자연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종교계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는 노후복지대책을 통해 고령화 문제와 함께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조계종은 3월 승려복지법을 통해 노후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승려복지회를 발족했다. 승려복지회는 무소득·무소인 노스님들에게 의료비와 요양비를 지원하며 의료복지 등을 관리한다. 신임 주지 스님들과 수계와 법계를 받는 스님들은 의무적으로 '입적 뒤 개인재산은 사찰(혹은 종단)에 귀속시킨다'는 유언장을 쓴다.

귀속된 재산은 전액 다른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쓰인다. 조계종에서는 그동안 종단·사찰 차원의 체계적인 노후복지대책 부재로 노후를 위한 개인 재산을 두고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많았다. 승려노후복지대책 마련은 청정승풍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선운사를 비롯한 지역 교구본사는 '노후 수행마을'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선운사가 조성 중인 노후수행마을은 2014년까지 7~8동의 한옥, 황토집, 초가집 등을 지어 총 20명 안팎의 노

스님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주사 등에서도 이미 노후수행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사제 노후를 책임진다. 은퇴 전 급여에 사제연금에 더한 금액(200만원 안팎)이 매달 지급된다. 가톨릭병원에서 진료료 비뚤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사제관이란 주거 공간도 제공된다.

개신교는 은퇴목회자의 경우 각 교단·교회 별로 대응하고 있

개신교는 연금재단을 운영

가톨릭·원불교 교단서 보강

다. 특정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는 퇴사 노후 주거공간 및 퇴직금과 같은 전액금을 지급한다.

교단 별 차이가 큰 가운데 개신교계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연금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1960년 설립한 이 연금재단 규모는 2770억원에 등록 목사 1만5000여 명(2009년 말) 수준으로 알려졌다.

원불교는 전체 2000여 명 성직자 중 320여 명이 68세 이상은 퇴자에 속한다. 이 중 200여 명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중앙수도원 등 요양시설에 살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교당·기관 등에서 살아간다. 매달 51만원 수준의 돈이 은퇴성직자들에게 지급된다.



가톨릭 사제·부제 서품식 모습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교	무	정	수
학	장	덕	민	재	무	중	천
선	원	장	종	사	회	종	민
총	무	종	우	포	교	성	요
기	획	정	문	호	법	각	천
				신	도	회	장
				도	회	장	변
				회	장	변	영
				장	변	영	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